

박시영

경남도립미술관 학예연구사

1) 기 드보르, 유재홍 역, 『스펙타클의 사회』, 울력, 2018. 개정3판. (Guy Debord, La société du spectacle, Gallimard, 1992)

2) 실제로 다양한 이인들이 현대 사회의 문제들을 지적하며, 예술로써 그 병폐들을 치유해 보고자 한다. 데이비드 조슬릿은 TV의 폐쇄회로적 기능을 비판하며 이미지가 갖는 힘을 통해 예술로써 권력에 대항하기를 주장한다. 니콜라 부리요 역시 사회적 틀으로써 기능하는 예술이 참여하는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관계들을 맺게 하며, 그 공동체 속에서 새로운 주체를 형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과정을 통해 결국 그는, 예술이 정치적 기능을 할 수 있다고 파악한다. 이러한 주장들은 단연 예술 이론가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으며, 자크 라캉에게 역시 『미학의 정치, 이론을 통해 정치, 분리, 파열로써 예술을 통한 정치를 주장한다. 펠릭스 가타리는 저서 『세 가지 생태학』을 통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해방되기 위해 예술적이고 창조적인 방식으로 새로운 삶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주체성 생산'에 대해 논한다.

3) 롤랑 바르트는 '자자는 곧 작품'이라는 후기 구조주의적 대전제를 악취시킴과 '자자의 자리에 독자를 내세우며 그 관계에 대해 질문한다. 아서 단토 역시 1960년대부터의 예술은 이전의 내러티브와의 결별을 선언했다며, 예술의 종말에 대한 낙관적인 상황을 논하고 있다.

4) 이외에도 프리드리히와 하인츠는 1980년대 유럽에서 예술의 종말과 미래의 예술에 대한 논의를 펼쳤으며, 리처드 슈타인 역시 프리그마티즘 미학의 관점에서 종말 이후 예술의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장바렘, 『예술의 종말』과 종말이후의 예술: 헤겔, 니체, 단토의 '예술의 종말'론 비교연구, vol.30, 한국문화학회, 2016, p.106.

5) 강수미, 『시장·창유·비평의 혼합』: 2000~2011 현대미술 상황 연구, vol.38, 미술사학연구회, 2012, p.41.

"격동의 변화가 지속되는 전 지구적 혼란 속에서 예술은 어떤 의미로 존재해야 하는가?"

기 드보르는 다양한 테제로 현시대 자본주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상품에 대한 급진적 비판 내용을 담고 있는 그의 저서¹⁾는 일상의 삶에 대한 자본주의의 영향력, 상품을 매개로 세계를 통치하는 지배력을 진술하고 있다. 드보르가 지적한 '스펙타클의 사회'는 3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거대 금융 자본의 이데올로기는 그렇게 의심할 새도 없이 일상으로 스며들었다. 더불어 심화되고 있는 환경문제, 글로벌화와 함께 동반되는 징후적 현상들, 최근 불어 닥친 바이러스의 위기까지, 인류의 존망을 위협하며 가속화되어 가는 다양한 갈등들은, 예술의 존재와 본질을 다시금 되묻게 한다.²⁾ 과연 예술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저자의 죽음', '예술의 종말'³⁾ 등의 다양한 담론들⁴⁾은 예술의 변화를 예고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예술 또한 변화를 거듭할 수밖에 없다는 예견이었다. 근대 이전의 예술이 거대 서사를 위해 철저하게 '별개의' 임무를 수행해왔다면, 이후의 예술은 자기비판적 진화론을 바탕으로 그 어떤 종속성도 배제한 채, 순수성과 자율성을 탐구했다. 이를 위해 예술은 극단적으로 삶과 사회, 대중과의 분리를 선언하며 독자적인 길을 나아갔고, 결과적으로 총체성, 성장위주, 개인주의, 거대담론만을 중시하는 배타적 영역이 되어버렸다. 물론 모든 분야가 그렇듯 외부로부터 시대적 상황이 반영된 결과였겠지만, 예술은 내부적으로도 변화를 맞이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타의, 그리고 자의로부터 변화를 맞이해야만 했던 예술은 그동안 분리해왔던 모든 것을 돌아보게 되었다. 그렇게 예술이 외적 영역과의 적극적 관계 맺기를 시작하면서 그것의 개념은 더욱 다변화되어 갔다. 이제는 무엇이든 예술이 될 수 있고, 또, 무엇인가(미적쾌의 추구)가 되어야 할 필요도 없어졌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예술이 될 수 있으며, 그 가치를 새롭게 써 나갈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서두에 지적했던 수많은 사회적 변변들 속에서, 예술은 어떻게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 것인가? 무엇을 통해, 어떤 역할로 존립해야 하는가? 사실 예술 내부적으로도 변화와 반성을 거듭할수록, 이러한 본질적 질문들은 더욱 간절해진다. 홀수처럼 불어나는 스펙터클의 시각적 자극 속에서 자기 존립과 발전을 위한 방법을 찾아 가야만 이 그것의 종말을 피할 수 있기에.

'관계' '커뮤니케이션' '상호작용' '조합' '글로벌리티(globality)' '틈' '차이' '순환' '이동' '혼성' '다양성' '다원성' '혼합' '전치' '협업' '공유' '참여' 등은 1990년대 후반부터 국내·외 미술계에 등장한 용어들이다.⁵⁾ 용어들과 함께 최근 20~30년간 등장한 새로운 예술들은 삶과 사람, 소통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정도를 가능할 수 없을 만큼 커져버린 사회적 문제들을 끌어안으며, 또 다른 변화를 촉구해온 것이라. 이러한 시도들은 지금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으며, 예술로써 사회적 가치를 이끌어 내고자 하는 예술가들은 늘었다. 다변화된 예술의 범주 속에서 큰 역할을 차지하게

된 사회(적) 예술, 공공(적) 예술, 삶을 위한 예술 등은 그 범위와 영역을 넓혀 나갔다. 예술은 이렇듯 내·외부의 다양한 위기와 변화들 속에서 그것의 존재 가치를 다시금 돌아보며, 사회적 역할과 실제의 삶에 결속하여 그 가치를 찾아가는 듯하다.

이번 전시는 그러한 예술과 삶의 통합된 지점, 예술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사회적 가치들을 돌아보게 했다. 모아모아, 기억채집, 과일여행 등의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최정화 작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전시《살아리 살어리랏다》는 우리의 일상적 삶을 작품 전면에 내세웠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삶과 기억'이 함께한 이번 전시는 현시대상황 속에서 어떤 의미를 만들어 낼 수 있을까? 최근 가장 큰 이슈인 코로나19는 모두의 일상을 무너뜨렸다. 가족들과의 나들이는 이제 저 먼 이야기처럼 과거의 기억 속에 존재한다. 평범했던 일상들이 이제는 법으로 '금지'되어 삶의 관계들을 끊어 놓았다. 이러한 상황들은 당연했던 일상과 삶의 기억을 되돌아보게 했고, 이번 전시는 그런 의미에서 예술로서 사회적 가치를 이끌어 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면밀히 따져본다면, 부족했던 부분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평범한 일상과 많은 이들의 기억'이 등장한 이번 전시는 끝이 예견되지 않던 암울한 상황 속에서, 그 자체만으로도 심금을 울리는 강한 힘으로 작용했다.⁶⁾

언제 전시 《살아리 살어리랏다 : 별유천지》(이하 '별유천지') 역시 본 전시와 함께 그 의미를 더하고자 했다. 그렇게 전시를 준비해가는 중, "예술의 사회적, 그것을 논할 것이 아니다! 예술을 다시 바라봐야 한다. 어쩌면 이런 논쟁 모두가 필요 없을 수도 있을 것이다. 원래부터 그래왔으니."라는 최정화 작가의 말을 듣게 되었다. 변화된 예술의 정의에 있어, 예술 자체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뜻으로 짐작되었다. 이는 예술과 사회, 동시대 예술의 존재 가치, 역할 등을 다시 돌아보게 했다. 예술의 사회적 기능만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예술의 개념과 존재 자체를 다시 돌아보아야 했다. 결국 그것은, '예술에 무엇을 담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예술로 바라보느냐'가 예술의 변화와 성장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발견이 되었다. 그로 인해 사회적 변화를 조금이라도 이끌어 낼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예술의 사회적 가치이며, 기능이라, '가치 있는 것의 창조'로서의 예술, 혹은 존재, 그것이건 충분했다.

그렇게 작가의 말, 예술의 재개념화와 함께 시작된 전시 '별유천지'는 예술과 예술가를 새롭게 바라보는 실험과 도전이 되었다. 이 실험과 도전으로써 (그 결과가 다소 미미할지라도) 현시대상황 속에서 변화와 가능성을 이끌 수 있는 전시, 그러한 예술, 그러한 작품, 그러한 이야기를 만들어 내고자 했다.

누구나 꿈꿀 수 있는 무릉도원, 이상향의 세계를 일컬어 우리는 별유천지(別有天地)⁷⁾라 부른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별유천지는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전시에 참여한 네 개의 팀은 조금 더 가치 있는 세상을 향해, 그들의 별유천지를 향해 살아가는 이들이다. 처음 그들에게선 평범하지 않은 아우라가 보였다. 개인의 이익을 쫓아 살아가는 현대인이 보기에, 힘들고 어려운 길을 택한 이들에게,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그렇게 비춰질 원치 않았다. 자신들은 그저 평범한 삶, 그들이 좋아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했다. 처음에 보았던 그 큰 아우라는, 그들의 개인적 삶의 의미가, 개인을 넘어 더 많은 이들을 향해 다양한 울림을 주고 있기에 가능한 것임을 깨달았다. 그저 원하고 바라던 그들의 평범한 삶이, 많은 이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새로운 가능성들을 만들어 내고 있었다. 평범하지 않을 것 같던 아우라의 세상 별유천지는, 평범한 삶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들의 현재, 지금-여기의 삶이었다. 그렇게 별유천지는 저 먼 곳이 아닌, 우리 곁에서 일상으로 함께했다.

6) 미술관에 방문했던 많은 관람객들의 반응을 보며, 최정화 작가가 건네는 소통의 힘을 다시 한 번 느꼈 수 있었다.

7) 당나라 시인 이백의 시 <산중문답 (山中問答)>에서 나온 말이다. 자연 속에 은거하는 삶의 정취를 읊은 이백의 대표작인 작품으로, 여기서 별유천지는 인간세계, 현실세상과 대비되는 또 다른 공간의 세상을 가리킨다. 별유천지(別有天地)라는 말은 별유천지, 별천지, 별세계라고도 하며, 주로 경치나 분위기가 마치 신선이 사는 듯한 느낌의 자연 공간을 가리키거나 현실의 세속적인 세태와 다른 이상적인 세계를 의미하는 말로 많이 쓰인다. <https://terms.naver.com/entry.nhn?dodd=5783410&cid=40942&categoryId=32972>

네 팀은, 다르면서 또, 같았다. 희망해져가는 마을 공동체에 다시금 활력을 불어넣고 소통을 만들어내고 있는 '공유를위한창조', 조금은 다른 내 아이들을 위한 삶이 마을 이웃을 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으로 함께한 '비컴프렌즈', 버려진 돌창고를 남해의 잊혀진 기억과 가치로 재탄생시키며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돌창고프로젝트', 촌라이프를 꿈꾸는 더 많은 청년들이 다양한 실험을 통해 자신의 선택에 의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반이 되어가는 '팜프라'까지. 그렇게 그들이 만들어가는 별유천지는, 새로운 삶의 가능성들이기에 충분했다.

그렇다면, 예술과 그들은 어떤 관계인가? 전시의 참여 작가로서 상응하는가? 앞에서 언급했던 최정화 작가의 말과 연결하여, 무엇을 예술로 볼 것인가를 되짚어 보았을 때, 그들은 충분히, 어쩌면 넘칠 만큼의 예술적 행위들을 해나가고 있었다. 그들은 늘 이웃과의 소통과 협업으로 살아간다. '이웃과 함께' 그것은 곧 그들의 삶 자체였다. 거듭 말했듯이, 이웃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삶이, 그 속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관계들이, 병변 많은 현대 사회 속에서 크고 작은 변화들을 만들어 내고 있었다. 이러한 변화와 가능성은 그 모든 과정들과 함께, '가치 있는 것의 창조', 즉, 예술(혹은 존재)이기에 충분했다. 많은 예술가들이 사회와 공동체를 위해 새로운 예술을 해나가는 것처럼, 그들은 자신들의 평범한 삶으로써 더할 나위 없이 가치 있는 예술적 성과를 보여줬음에 틀림이 없었다. 예술이 꼭 예술가만이 할 수 있는(혹은 해야 하는) 것인가의 답은 역시, '아니다'였다.

이번 전시는 그들의 삶 자체를 작품으로 삼았다. 미적쾌를 향한 보기 좋은 예술 작품이 아닌, 그들이 살아가는 삶과 소통의 과정을 진솔하게 담고자 했다. 각각의 공간에서 그들은, 가감 없는 자신들의 일상과 활동의 목표를 보여준다. 멀리 않은 곳에서, 낯설지 않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들의 삶은 많은 이들에게 공감과 울림을 이끌어 낼 수 있으리라. 그들이 만들어가는 조금 더 가치 있고 희망적인 세상, '별유천지'를 통해, 관객 모두가 현재 삶의 가치와 새로운 가능성을 깨닫고, 자신만의 별유천지를 꿈꿔볼 수 있길 기대해 본다.